

교사 인정받는 문화 창출 전남 미래 교육서 찾겠다

고석규 후보

-대입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은?
대학입시제도는 학생 개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수능도 절대평가로 전환을 고려해야할 시점이다.
‘명품 일반고’육성을 위해 대학입시 상담체제 구축, 고교학점제 시스템 구축, 권역별 교과별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 지자체와 대학을 연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선택중심 방과후학교 운영 등의 시책으로 수시전형을 대내외로 전문화와 특성화 체제를 구축하겠다.
-왜 교육감이 되려는가?
전남의 미래에 대한 답은 교육에 있다. 전남의 미래를 위해, 교육에서 그 답을 찾기 위해 나섰다. 교육감은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다. 전남의 아이들이 출발부터 보다 나은 교육을 받아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다. 대학 총장과 전국 총장협의회 회장으로서 행정과 정치력을 인정받았고, 현 정부에서 출발부터 보다 나은 교육을 받아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다. 대학 총장과 전국 총장협의회 회장으로서 행정과 정치력을 인정받았고, 현 정부에서 출발부터 보다 나은 교육을 받아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다. 대학 총장과 전국 총장협의회 회장으로서 행정과 정치력을 인정받았고, 현 정부에서 출발부터 보다 나은 교육을 받아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다.
-올해로 다문화학생 1만명 시대다. 다문화교육 발전 방안은?
다문화교육 발전 방안은?



직부터 슬림화해 각종 사업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필요하다. 방만한 조직은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경쟁적으로 공모사업, 연구학교 등의 각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방만한 사업을 과감하게 축소 또는 폐지하고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학교장의 교육철학과 지역 특성에 맞게 학교에서 필요한 것을 교육과정 속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교권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교권과 인권을 조화롭게 정착시킬 대책은?
요즘 우리 사회 최고의 화두는 ‘소통’이다. 우리는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상대에 대한 이해와 포용을 바탕으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결국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사람이다. 교육공동체 인권조례를 제정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성과급 지급과 연계되는 교원평가에

- 도서벽지 지역할당 교사임용제 등 정립
- 소규모 학교 맞춤형 지원 아끼지 않을 것
- 교육청 조직 슬림화 각종 사업 대폭 축소
- 교육공동체 인권조례 제정 법적 기반 마련

전남의 경우를 보면 인구대비 다문화 가정 학생의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결혼이주 여성의 정진정 모국을 존중하고 그 문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한다. 이제까지 학교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다문화교육을 각 시·군 다문화센터와 연계해서 가정을 포함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앞으로는 다문화 가정 학생이 늘어난 게 단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교육행정을 전개하겠다.
-도시농촌 학생 간 수업 질 격차 해소 방안?
농어촌과 도서벽지 학교를 대상으로 지역할당 교사임용제, 초빙교사 자율권 확대 등 효율적인 인사행정과 학교 여건을 고려한 재정배분에 획기적인 모델을 정립하는 등 투명하고 창의적인 교육행정을 펼치겠다. 유능한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학교의 자율성 신장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겠다.
-학교 통폐합 대책 있나?
전남 대부분의 농어촌 학교는 마을 공동체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학교는 학교를 둘러싼 환경의 사회문화적 요소들에 영향을 주고 받으며 존재한다. 특히 학생수가 급감하는 전남의 경우 학교는 마을공동체의 유기적 협조는 더욱 긴밀해질 수밖에 없다. ‘강소’라는 말이 있다. 작지만 강하다. 소규모학교도 맞춤형 지원을 함으로써 작지만 강한 학교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섬 지역 교육격차 해소 방안은?
공교육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학교의 자율성을 신장시켜야 한다는 교육적 소신을 지니고 있다. 과감하게 교육감 권한을 이양하겠다. 유지원의 방과후 시간제 기간제 교사 채용문제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는 융통성 있는 행정을 펼치겠다.
-교사 행정업무 경감 요구에 대한 의견은?
가장 큰 특단의 조치는 먼저 교육청 조

농어촌학교 자생력 키워 찾아오는 학교 만들겠다

오인성 후보

-대입 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은?
전남은 90% 이상 학생이 학생부 종합 전형 등 수시전형으로 진학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는 수시전형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현재의 고른기회전형 및 지역인재 특별전형 등과 같은 전형제도를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고교출신의 우수한 학생들이 희망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앞장서겠다.
-왜 교육감이 되려는가?
제대로 된 지원과 행정을 위해서는 전남교육 현실과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 그리고 이해가 있어야 한다. 평생을 학교 현장에만 몸담아온 선생님과 이론을 연구하는 학자로서의 교수님, 모두 훌륭한 교육자가 될 수는 있어도 교육행정은 교육행정을 직접 수행했던 교육행정 전문가가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교육과 연구, 교육행정을 두루 경험한 내가 전남교육공동체의 부름에 응답하여 전남교육 발전에 온몸 던져야 할 때가 되었다는 소명의식으로 출마했다.
-올해로 다문화 학생 1만명 시대다. 다문화교육 발전 방안은?
이제는 다문화 학생 및 학부모를 특별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문화의 다양성과 포용성 교육의 소중한 원천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해야한다. 동반자로서의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요구에 맞는 적절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시·군별



-교권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교권과 인권을 조화롭게 정착시킬 대책은?
교육 현장에서 학생 인권과 교권은 함께 존중되어야 할 고귀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인권(교권) 존중교육을 학교 교육 과정에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 부득이 불행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전남교원지원센터를 활성화해 교권보호 전담변호사 및 전문상담사를 확충하고 예산 지원을 확대하여 피해교원의 회복적 치유와 함께 법률적·경제적으로 현장 교원의 교권 침해 사안에 적극 대처하겠다.
-성과급 지급과 연계되는 교원 평가에 대한 입장은?
성과급은 성과평가를 하기 때문에 모든 다 열심히 노력해도 일부는 하위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순을 안고 있어서 교육 현장의 갈등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도입된 배경

- 유·초·중등 교육 충분한 경험과 지식 갖춰
- 특성하고 다문화직업거점학교 운영 취업 지원
- 통학버스 공동·100원 버스 등 통학편의 제공
- 공문·출장 최소화로 교사 업무 대폭 줄일 것

특성학교를 다문화직업거점학교로 운영하여 취업을 지원하겠다.
-도시농촌 학생간 수업의 질 격차 해소 방안?
중·고교를 아우르는 교육지원청 단위 겸임교사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상시교사(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겠다. 현장 맞춤형 연수나 전문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여 비슷한 여건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함께 수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성을 키우도록 하겠다.
-학교통폐합 대책 있나?
통폐합 이전에 농어촌학교의 자생력을 키워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농어촌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경제적 문화적 요인을 교육이 줄여야한다. 학교 고유의 빛깔과 향기가 있는 특색 교육을 통해 교육력을 높임으로써 농어촌 작은 학교의 경쟁력을 키우겠다. 저출산 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전일제학교 시스템도 만들어서 학생 보육을 돕겠다.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읍면간 공동학구제 확대, 초·중 통학버스 공동 이용, 100원 버스 등 통학편의를 제공하겠다.
-섬 지역 교육격차 해소 방안?
완도, 신안 등 일부 병설유치원은 유치원 방과후과정 교사 채용공고를 3차까지 해도 지원자가 없어서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유치원이 존재하고 있다. 섬 내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학부모가 있어도 자격기준 때문에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역 실정 감안해 교육청 차원의 유치원 방과후 인력운영 지정을 별도로 만들어 지원하겠다.
-교사 행정업무 감경 요구에 대한 의견은?
실질적인 업무 경감을 위해 교사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공모사업을 대폭 폐지하고, 빅데이터 집적과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으로 공문과 출장을 최소화하겠다. 또한 외부 학교폭력처리지원기구 설립 등을 통해 교사는 본연의 업무인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

활동 중심 혁신학교 확대 모두가 행복한 교육 조성

장석웅 후보

-대입 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은?
학생부교과전형은 교육적이면서 공정성이 높은 전형이다. 따라서 대학서열 체제가 해소되고 대학입학자격고사가 본격 도입되기까지 대입제도 개편의 방향은 학생부교과전형을 기본으로 하고 수능과 학종을 최소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입시경쟁교육 해소를 위해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으로 대입전형을 바꾸어야 한다. 전남교육청은 입시교육 대신 활동 중심의 혁신학교 확대로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가져와야 한다.
-왜 교육감이 되려는가?
37년 전남에서 평교사로 재직했다. 전교조 전국위원장과 교육시민단체 대표를 맡아 참교육을 실천해온 현장교육 전문가라고 자부한다. 오랜 현장교육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바탕으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전남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출마했다. 더불어 영암출발 상임대표, 전남출발 공동대표를 맡으며 만들어낸 문제의식과 교육대개혁을 성공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전남도민들과 37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만든 민주진보교육감 전남추진위 단일후보로 선정되었기에 전국의 민주진보교육감들과 연대하여 새로운 국가, 새로운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도 문제의식과 함께 실현하고 싶다.
-올해로 다문화 학생 1만명 시대다. 다문화교육 발전 방안은?
1만 명에 달하고 있는 다문화학생들



프로그램이다.
-교사 행정업무 감경 요구에 대한 의견은?
교사가 본연의 역할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모 시행을 50%로 축소할 것이다. 연구시범학교, 공모사업 등 전시성 사업을 폐지 축소할 것이다.
-교권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교권과 인권을 조화롭게 정착시킬 대책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함께 제정하여, 교사와 학생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참다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학생 인권과 교권의 대립적 개념이 아닌 동반자적 개념이다. ‘교권보호조례’ 제정과 함께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서 교사와 학생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참다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

- 다문화예비학교 시군별 1개씩 22개 운영
- 학생간 불균형 해소 기초학력책임제 실시
- 마을학교 모델 모든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 꿈사다리학교 운영 섬지역 교육격차 줄여

위해서는 현재 7개의 다문화예비학교를 시군별로 1개씩 22개로 늘려 다문화교육 강화, 문화다양성을 제고하는 프로그램 확대 운영하겠다. 다문화교육 정책도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관심과 일반 학생의 국제적 시각을 변화시키는 방향 두 가지로 운영하고자 한다.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을 운영하여 다문화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문화적 상대주의 시각으로 세계 시민성을 갖춘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도시농촌 학생간 교육의 질 격차 해소 방안은?
학교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농산어촌, 도서벽지, 원도심 지역에 있는 작은 학교의 예산을 20% 증액하여 교부하고자 한다. 학생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학력책임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학교통폐합 대책 있나?
미래형 지역공동체 학교를 캐나다처럼 지역사회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생활의 플랫폼(도서관, 체육관, 시청각 시설)으로 만들고자 한다. 낮에는 학교이지만 밤에는 지역공동체의 시설이 되도록 하여, 학교가 가진 기능의 일부를 마을로, 마을의 자원을 학교로 유치하겠다. 현재 영광, 무안, 고흥군 등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마을학교’ 모델을 모든 농어촌 지역으로 점차 확대하고자 한다. 이는 대도시나 큰 규모의 학교가 많은 지역에서는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전남교육만의 모델이 될 것이다. 마을은 또 하나의 학교다.
-섬 지역 교육격차 해소 방안은?
섬 지역에 있어서는 타 시·도처럼 방과후시간제 기간제교사의 자격을 보육교사까지 완화하여 섬지역의 교육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 섬지역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꿈사다리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꿈사다리학교’는 멘토 1명과 멘티 2명이 밀착하여 놀이 문화 활동과 함께 공부하며 학생들의 자존감과 협동력, 공동체성을 향상시키는

록 하겠다. 교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성과급 지급과 연계되는 교원 평가에 대한 입장은?
지난 대선 기간, 교사들이 원하는 교육정책 1순위가 성과급 폐지였다. 학교에서 협력이 아닌 경쟁을 강제하는 성과급 지급과 이에 따른 교원 평가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교사 선발전 등 사학과의 관계 설정은?
전남교육청의 ‘사립학교 교원 공동선발 TF’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서 사립학교의 인사비리 해소와 건전성을 강화하겠다. 더불어 사립학교 교원 공동선발제 운영을 위한 교육청-학교법인(교장, 행정실장)협의회를 꾸리려고 한다.
-자유 발원
지금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 늘 고민했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부모들은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 교사, 교직원들 모두가 교육에만 전념하고 그에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학교, 학교로부터의 변화가 위기의 전남에 새로운 희망이 되는 그런 교육, 모두가 행복한 전남교육이 절실하다. 아이들과 함께 평교사 37년! 학생, 학부모, 교사, 교직원들이 무얼 바라고 필요로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다. 아이들의 미래는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교실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으로 모두가 행복한 전남교육을 만들겠다.
-존경하는 인물 ‘마틴 루터 킹 목사’, ‘김구 선생님’, ‘이회영 선생님’
-김명길게 읽은 책 ‘오래된 미래’, ‘인간의벽’, ‘태백산맥’
-김명길게 본 영화 ‘델타와루이스’, ‘세 일간지들’, ‘왕이 된 남자 광해’
-장·단점 로맨티스티며, 감수성이 풍부하다. /사람을 쉽게 믿는다는 것.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